

8월의 계란전망

강재명
본회 지도조사부 과장

“8월중 약세권에서 9월 들어 회복세로 움직일듯”

□ 계란소비의 약세들이 8월에 집중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여름방학과 무더위로 인하여 물량체화가 심각한 상태에서 고온으로 인한 농장 저장기간까지 짧아짐에 따라 생산자의 심리를 2중3중의 고통을 주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상반기 계란값 호황과 더불어 농가에서 군납을 기피하는 등 생산자의 근시안적인 개인주의가 발동해 50% 가까이 군납용 계란이 타품목으로 대치됨으로써 업계 스스로 소비위축에 일로한 느낌을 주고 있다. 향후 수입개방과 싸우기 위해서도 자기살을 깎아 먹는 행위는 업계 전체의 힘으로 대처해 나가는 협동자세가 꼭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 90년 상반기 산란사료 생산실적을 보면 초생주 사료는 29,172 M/T, 육추사료 148,011 M/T 산란기사료는 741,014 M/T으로 각각 3.7%, 5.0%, 3.7% 증가했다. 5월은 초생추 5,212 M/T, 산란기사료 118,938 M/T으로 전년도 동월대비 12.0%, 4.7% 각각 증가했다. 병아리 입식현황은 상반기 누계가 PS는 274,200수로 0.2% 감소했으나 6월중 입식은 111,800수로 상반기 전입식수수의 40% 가까이 차지하는 등 급증세를 보였다. 실용계 산란 병아리 입주는 매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전체수수는 12,811천수로 전년도 동기간에 비해 4.8% 감소했다.

□ 하절기 가격하락의 후유증이 8월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늦더위가 길어지리란 예상때문에 쉽사리 계란값 회복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추석의 영향도 9월 들어서나 영향을 끼칠 것 같다. 작년 11월 이후 병아리 입식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7, 8월 중·소·경란 등 잔알의 체화가 극심하였던 점을 볼 때 예년과는 다른 계란생산 패턴이 예상된다. 즉 봄·가을 입추기의 특징이 많이 없어지고 연중 입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향후 사육수수도 꾸준한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계란 생산과 직결되므로 하절기 이후 추석 수요기까지는 강보합세 정도에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석 이후 바로 약보합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현재의 입추패턴이 때를 가리지 않고 입추열기가 지속됨에 따라 병아리 생산증가가 지속되리란 예상 속에 향후 특히 91년도 계란값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런 입추패턴이 금년 가을추 입추시즌까지는 계속될 전망이다.

※ 종계 및 실용계 병아리 입식수수

(단위 : 천수)

구분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종 계	88	52.0	21.5	16.1	27.9	65.6	38.4	8.3	41.9	2.9	24.0	49.4	55.6	403.6
	89	84.9	40.1	23.5	41.6	56.1	28.4	24.0	14.8	67.5	45.3	40.6	33.2	499.9
	90	25.8	42.2	32.6	20.1	38.3	111.8							
실용계	88	1,742	2,205	2,428	2,365	1,790	1,283	1,335	1,420	1,695	1,743	1,402	1,185	20,593
	89	1,355	2,569	2,683	2,420	2,562	2,352	1,925	2,237	2,197	1,959	1,806	1,904	25,969
	90	1,970	1,959	2,302	2,117	2,229	2,229							

그림 1. 대란고시가격(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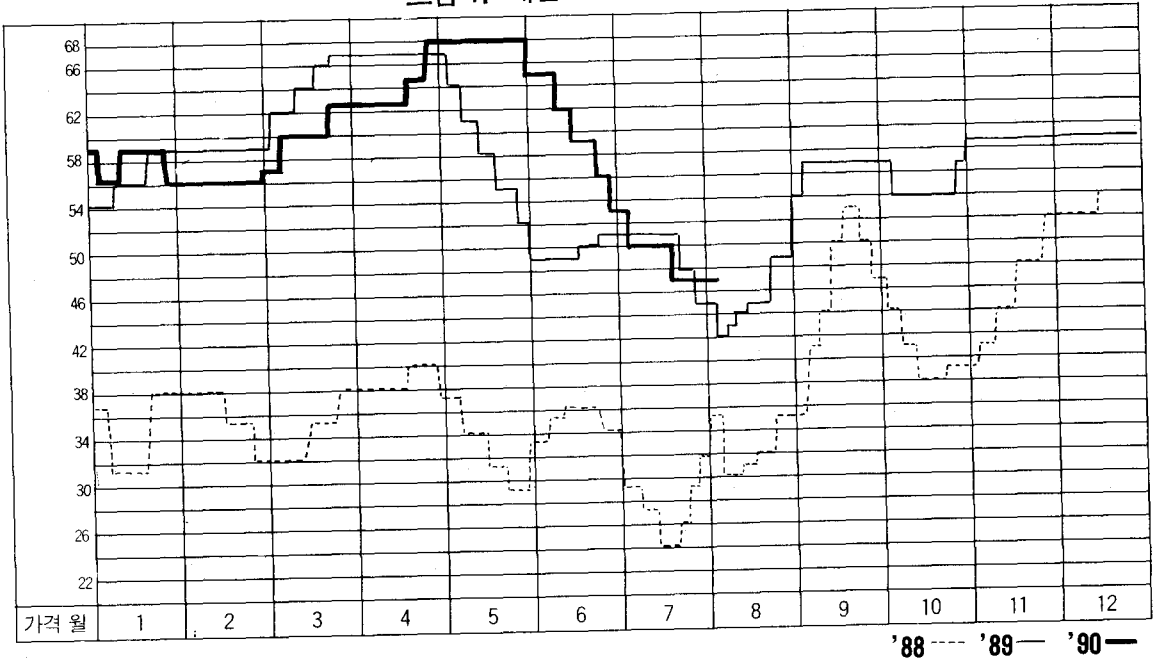


그림 2. 배합사료 생산실적

